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98호 【루계 제24876호】 주제104(2015)년 4월 8일 (수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약전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약전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홍영철 동지, 윤동현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해 3월 평양약전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공장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우리 식의 최첨단약전기계제품을 개발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지말씀판철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공장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뚫고 나감으로써 당에서 준 투쟁과업을 빛나게 수행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일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면서 맡겨진 과제를 제기일에 수행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공장의 로동계급을 고무격려해주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혁명사적 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진문헌을 천연색으로 새로 정중히 모신것을 보시고 혁명사적교양실을 잘 꾸리였다고, 하나하나의 사적물과 사적자료들은 대를 두고 전해갈 귀중한 혁명유산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1955년 10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1967년 9월 평양약전기계공장에 대한 현지지도의 첫 자욱을 새기

시였다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공장을 늘 관심하시고 여러차례나 찾아오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고, 수령님들의 기록한 발자취가 곧 이 공장의 발전력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는것처럼 영예롭고 중요한 사업은 없다고 하시면서 혁명사적

교양실을 통한 교양사업을 짜고들어 종업원들이 자기들이 어떤 일터에서 일하는가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높은 생산성파로 수령님들의 업적을 빛내여가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제품진렬실, 가공직장, 조립직장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새 제품개발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기술문헌에도 없고 남들이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최첨단 약전기계제품을 만들어내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새 제품개발 사업을 힘있게 벌리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새 제품개발에서 성과를 거두자면 기성관념에 사로잡히거나 남들을 따라갈 생각을 하지 말고 주체적인 판점과 립장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우리 식대로 새 제품개발사업을 다그쳐야 약전기계제품생산의 주체화, 국산화를 실현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공장에서는 새 제품개발사업에 힘을 집중하는것과 함께 생산량을 부단히 늘이며 제품의 정밀성, 안정성, 실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생산은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자면 CNC기계 등 모든 설비들을 만가동, 만부하로 돌리며 낡은 설비들을 현대화하여 적극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하시였다.

2 번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약전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1 면에서 계속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바람속에서 생산에 필요한 여러가지 기체들을 창안제작하며 약전기계핵심부분품들을 자체로 생산 보장하기 위한 기술공정을 확립하여 생산원가를 부단히 낮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제품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술관리, 품질관리를 더욱 짜고드는것과 함께 생산자들과 검사성원들이 생산과 검사에서

자기들의 깨끗한 량심을 바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문화회관에서 공장기동예술포럼대의 공연을 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기동예술포럼대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렬도 자욱이 력력히 어린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살며 쫓아가는 종업원들의 마음을 담은 사상성이 대단히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종목마다에 당정책이 맥박치고 공장애가 차넘치며 당의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는 길에서 기수, 돌격대가 되려는 공장로동계급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성격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 하시면서 공연을 보니 공장에 대한 믿음이 더해진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조선의 령도자께서는 비행기의 성능이 대단히 높다고, 조종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한 자력생분보기공장이 역시 다르다고, 공장안에 1950년대 군자리로동계급이 발휘한

투쟁정신이 세차게 뿜어번지고있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혁명에 대한 최대의 총정심의 표현이고 가장 고결한 조국애인 군자리정신으로 살며 일할 때 절명 못할 요새가 없다고, 공장의 로동계급이 군자리로동계급처럼 투쟁한다면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으로 최첨단약전기계제품을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약전기계공장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이 합심하여 새 제품개발과 생산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평양약전기계공장의 전체 로동계급은 공장에 불멸의 령도자속을 또다시 새기시며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면서 당중앙이 맡겨준 무거운 임무로 전투임을 결사관철하고야말 불라는 맹세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정보단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수령

태양절경축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3월 27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라오스 통신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금산포수산업소건설을 현지지도하시는 사진문헌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동지께서 금산포수산업소건설과 금산포수산업소건설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서해안의 중심어장에 위치한 늑골도에 군인들과 인민들을 위한 수산물가공기지를 일떠세울수 있는것은 김정은동지께서 서해안과 더불어 생각하고 생각할수 없다고 말씀하시었다. 여기에서는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공사정형을 료해하시고 첫갈가공공장과 수산물가공소를 훌륭히 일떠세우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면서 첫갈가공공장과 수산물가공소의 생산기지를 물론 종업원들, 어로공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대상들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없이, 로동당사태를 대표할수 있게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하시었다. 또한 설비배치와 생산조직,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의 기계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한 새로운 경비행기에 몸소 오르시어 리착륙시험비행을 진행하시었다. 조선의 령도자께서는 비행기의 성능이 대단히 높다고, 조종하기 편리하고 발동기소리가 아주 좋다고, 잘 만들었다고 칭찬하시었다. 여기에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는 이 공장에서 군용비행기뿐 아니라 여러 기종의 민간용 경비행기들도 마음먹은대로 만들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에 자신께서 주신 지시에 따라 국산화된 경비행기들을 훌륭히 만들어낸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인메르락스통신, 엔메베TV방송, 에호 모스크비방송, 스푸트니크방송, 인터넷트통신 웨스 제, 루, 인터넷신문 《브즈글라드. 루》를 비롯한 로씨야의 출판보도물들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편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넷트홈페이지, 도이쉴란드24시간 인터넷트홈페이지 《현지지도소식들》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현지에서 보도하시었다. 로씨야의 파스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태양절경축 말레이시아준비위원회의 결성식이 3월 30일 동부 엔터프라이즈회사에서 진행되었다. 결성식장전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결성식에는 말레이시아의 각계 인사들과 조선인민과의 친선단체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톰보 엔터프라이즈회사 사장 청칭치가 선출되었다. 위원장은 결성식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태양절을 맞으며 조선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린다. 김일성주석은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세계자주화위업의 새로운 장을 펼치신 사상의 거장, 한세대에 미일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건설하신 군사의 영재, 세계정치의 원로이시다. 그의 한평생은 인민위업을 좌우명으로 삼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님의 한생이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혁명과 인유자주위업에 쌓으신 거대한

업적으로 하여 조선인민뿐 아니라 전세계 진보적인민들로부터 다함없는 경의를 받고계신다. 그는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수령이며 절세의 위인이시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였으나 태양이 영원하듯이 그의 사상과 위업은 영원불멸할 것이며 세계자주화위업에 바치신 업적은 세기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준비위원회는 4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으신 업적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선군의 길,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의 현실을 출판보도물에 널리 소개선전하며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태양절경축 쿠웨이트준비위원회가 3월 18일에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쿠웨이트 아시아기자협회 위원장인 쿠웨이트 타임스출판사 행정국장 자위드 아흐마드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3월 18일부터 4월 16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출판보도물에 널리 소개선전하며 업적도론편, 영화감상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태양절경축 스웨리에준비위원회가 3월 23일에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들로 스웨리에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크리스테르 룬드그렌, 스웨리에공산당 집행위원 헬비그렌, 스웨리에공산당 피레보리위원회 집행위원 다니엘 우프스트림이 선출되었다. 태양절경축 준비위원회가 3월 24일 마자르의 부다페슈트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마자르로동당 위원장 튀르메르 줄라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3월 24일부터 4월 17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수도와 지방들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북침전쟁도발을 합리화하기 위한 꾀변

《중북》이란 북을 추종한다는 뜻으로서 본질에 있어서 우리에게 대한 극단적인 적대적의 발로이다. 동족을 그 어떤 《위협세력》으로 묘사하면서 남북통일을 주장하는 인사들과 단체들을 《중북세력》으로 몰아 저들의 대결전정책들을 합리화하는 것이 바로 피괴보수세력이 《중북론》을 들고나온 목적인 것이다. 피괴들이 말끝마다 《중북》 타령을 늘어놓으면서 대결전정책들이 광범하고있는 것도 그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피괴보수세력은 최근에 있는 미국대사정발사건에 대해 《중북세력》이 집행한 《평화에 대한 공격》이니 뭐니 하면서 안보를 위해 미국과의 연합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한편 피괴보수세력은 미국과의 《동맹》과 안보를 위해 《중북세력을 침산》해야 한다고 피괴를 돌리면서 반전평화를 주장하는 진보적단체와 인사들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하고있다. 이것은 《중북론》이 남조선피괴들의 동족대결정책을 정당화하고 북침전쟁도발을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한 위협한 대결론, 전쟁론이라든가 《안보관을 정립》한다고 하면서 전쟁도발발발기가 날로 무모한 단계로 치닫고있는 속에 《중북론》은 가족이 나뉠만한 정세를 더욱 험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중북론》은 있지도 않는 《북위협》의 간판 밑에 북침전쟁정책들을 합리화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범죄적인 대결론이다.

《중북론》은 동족적대적의 뿌리에서 돌아온 대결의 독버섯이다. 지난 시기 피괴들은 《공산세력의 남하》, 《남침위협》 설과 같은 꾀변으로 저들의 북침전쟁정책들을 정당화해왔다. 그것이 이제

와서 통하지 않게 되자 피괴들은 그 무슨 《북위협》이니, 《도발》이니 하는 터무니없는 말들을 요란하게 내댈리면서 우리를 걸고 저들의 전쟁도발정책들을 합리화하는 한편 《중북론》을 적극 써먹고있다. 최근 피괴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통일을 위한 5단계군사전략》에는 《중북》세력의 《세계적북침활동》을 막기 위한 통합방위작전단계》가 중요한 전략적목표의 하나로 규정되어있다. 이것은 피괴들이 떠드는 《중북론》의 위협성을 뚜렷이 부각시키고있다.

피괴들은 《중북론》을 동족을 해지기 위한 저들의 호전적대결을 미화하고 남조선사회에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있다. 피괴보수세력이 《북과 중북세력의 실제》를 알려주어 《안보관을 정립》하기 위한 반동적인 교육내용을 적극 벌이고있는 것도 그것을 말해준다. 《중북》이니 뭐니 하며 주민들속에 동족을 반대하는 무조건적인 적대적의식을 주입시키려는 것이 남조선피괴들의 중심이다.

이제 피괴국방부는 《2012년 업무보고서》에 《중북세력침산》과 사병들의 《안보관을 정립》한다고 하면서 《정신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을 중요내용으로 쏘아박았다. 그에 따라 피괴군부 《중북세력실제표준교안》이라는 것을 만들어 군부대들에서 리용하도록 내 려왔고 그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안보강연내용에 쏟아부었다고도 한다.

《중북론》은 있지도 않는 《북위협》의 간판 밑에 북침전쟁정책들을 합리화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범죄적인 대결론이다. 《중북론》은 동족적대적의 뿌리에서 돌아온 대결의 독버섯이다. 지난 시기 피괴들은 《공산세력의 남하》, 《남침위협》 설과 같은 꾀변으로 저들의 북침전쟁정책들을 정당화해왔다. 그것이 이제

그들을 내몰아 북침전쟁의 도화에 불을 달라는 피괴세력의 흉악한 기도는 이처럼 뚜렷이 드러나고있다. 《중북론》을 내 놓고 북침야망 실현에 미쳐날뛰는 피괴세력의 반민적범죄행위를 우리 민족은 철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중북론》은 남조선인민들의 반전평화투쟁을 말살하고 북침전쟁도발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한 악랄한 모략설이다. 북침전쟁도발정책이 민족의 명멸을 해친것의 참혹속에 몰아넣는 반민적책임을 어떻게 하는지 두말할 여지도 없다. 그러므로 하여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피괴당국이 미국과 약하게 협력하는 무분별한 전쟁정책을 반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여왔다.

미국을 등에 업고 어떻게 하나 동족을 해칠 흉심을 품고있는 피괴세력은 남조선인민들의 반전평화투쟁기운을 억누르기 위해 《중북론》을 적극 들고나오고 있다. 피괴세력은 《중북세력》은 《북의 특수부대》라느니, 전쟁이 일어나면 《적화통일에 앞장설 안보위협세력》이라느니 하고 피괴를 돌리면서 《중북세력적질》 팽풍을 사나게 하고있다. 피괴들이 《중북세력》으로 규정된 단체들을 보면 조국통일법민족통일 남측본부, 조국통일법민족통일학생연맹 남측본부 비롯하여 반전평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앞장선 진보주의 통일연맹 조직 단체인 단체들이 《내란음모》나 뭐니 하며 《중북세력》의 감투를 씌워 개입시킨 통합진보당도 지난 시기 반제당의 동맹대결정책과 북침전쟁정책을 반대하여 적극적으로 투쟁을 벌여왔다. 보수세력은 통합진보당의 이런 활동을 눈에 든 가지치면 여기면서 기괴 해산시키고야말았다.

최근에 있는 미국대사정발사건을 계기로 반미반전투쟁을 말살하기 위한 피괴세력의 《중북》소동은 절정에 달하고있다. 남조선피괴들은 미국대사에게 정발을 안긴 주권이 반전평화운동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한 성원이었다고 떠벌이면서 반미와 군사훈련중단을 주장하는 세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기세를 토 하였다. 그에 따라 경찰당국은 《중북세력》과 그 배후를 색출한다고 하면서 살벌한 수사소동을 벌이고있다. 이로 말미암아 지금 남조선에는 외세를 반대하고 자주를 주장해도 《중북》으로 몰리우고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주장해도 《중북》의 감투를 쓰고 탄압을 당해야 하는 살벌한 현실이 펼쳐지고있다. 그것은 지난 세기 도이쾨란드를 파초화하고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몰아온 히틀러도 배의 《공산주의위협론》과 영화배우들까지 《빨갱이사냥》의 대상으로 삼으며 핵군비경쟁과 세계적대결양상을 부채질한 《맥카시선동》 그레고리다. 남조선의 현실은 피괴보수세력이 떠벌이는 《중북론》이 야마를 민족의 머리 위에 전쟁의 참화까지 몰아오는 위협한 대결론, 전쟁론이라는 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중북》이니 뭐니 하고 고아대며 북침전쟁도발정책에 날로 기승을 부리는 피괴세력의 책동은 온 겨레의 지쳐는 분노와 증오를 불러일으키고있다. 벽대로 동족을 등지고 외세를 결합하여 대결과 전쟁을 추구해온 반역도대들은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했다. 피괴반역세력의 무분별한 《중북》소동은 그들의 시의 수치스러운 파멸로 막을 내릴 것이다.

은 정철

마애수 영가 통일 의지

지금 피괴보수세력이 평안적으로 벌리고있는 파초적인 《중북》소동의 주체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진보적단체들과 인사들이다. 피괴들은 반민적적인 《세계 통일》 야망을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그에 항거해나서는 각계층 인민들을 예전 선인자의 전쟁을 집지 않고 《대북정책》을 대대하게 전환하고 들어가고 있다. 진보적연륜들과 전문가들도 북남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는 당국이 《5.24 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관광개장에 나서는데 있다고 평가하였다. 시민사회단체들과 통일운동단체들은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이행만 이 북남관계 평화변영을 이룩하여 한다는 우물쭈물하고 있다. 그러나 피괴들이 《중북》소동에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겨레의 통일연륜을 실현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막지 못하고있다.

얼마전 6.15 공동선언 실천 남북위원회 대전본부와 안산분부는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호호 하는 성명, 담화, 선언문들을 편하여 발표하였다. 단체들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

일의 전략적구면을 기어어 걸어놓을 의지를 과변하면서 피괴당국에 《중북》소동의 중단과 《5.24 조치》 해제, 민간통일운동의 보강 등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민주로총과 남조선총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통일의 길을 북남동맹통일축구에 열어나갈것이라고 밝히었다. 야당들도 보수세력의 반동일적대결에 대한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며서 피괴당에게 선인자의 전쟁을 집지 말고 《대북정책》을 대대하게 전환하고 들어가고 있다. 진보적연륜들과 전문가들도 북남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는 당국이 《5.24 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관광개장에 나서는데 있다고 평가하였다. 시민사회단체들과 통일운동단체들은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이행만 이 북남관계 평화변영을 이룩하여 한다는 우물쭈물하고 있다. 그러나 피괴들이 《중북》소동에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겨레의 통일연륜을 실현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막지 못하고있다.

오늘의 엄중한 현실은 우리 겨레모두에게 북남인민들이 이행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의 길에 열리고 그렇지 못한 현실의 재단이 불의위적게 된다는 것을 뼈아프게 새겨주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은 외세를 등에 업고 반동일 대결책정으로 북남관계를 파괴에 몰아넣는 것만이라도 단호하게 맞서 싸워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극악한 반

《천안》호침몰사건의 진상을 부정하는 꾀변 반박

남조선의 경성대학교 명예교수 김창수가 1일 신문 《미디어 오늘》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천안》호침몰사건의 진상을 부정하는 피괴당국의 꾀변을 반박하면서 《천안》호가 잠수함과 충돌하여 침몰하였다고 다시 한번 강요하였다.

지난해 11월 그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연구원 머로 카레스트라와 공동으로 국제학술잡지에 기고한 《무엇이 정찰로 《천안》호침몰을 일으켰나?》라는 제목의 연구논문을 통해 함선이 잠수함과 충돌하여 침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피괴청와대의 한 행정관은 피괴당국 곳의 수심이

47m에 불과하여 미해잠수함이 작전할 수 있는 수역이라느니, 잠수함이 급히 부상하려다도 수심이 얕기때문에 《천안》호에서 가운데부분과 충돌할 수 없느냐니 하며 부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우리당》 패거리의 《유언비어》니 뭐니 하며 떠벌렸었다.

이에 대해 김창수는 기자회견에서 해당 잠수함높이가 총 30m로 추정되는 데 해 47m수심을 지나가지 못하는가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논문은 사건과 관련된 언론에 알려진 모든 보도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된것이라고 밝혔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필수 없다고 인정하고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7년간 보수세력은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소송을 벌이지 못하게 할려고 노력하는 것과는 반대로 《천안》호 침몰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기하는 것과 함께 가족들에게 모진 고통만을 들이쳤다고 규탄하였다. 이는 사건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그의 교육활동이 저해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파쇼악

법인 반복하는 가족현실이라고 개탄하였다. 유언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보안법》 제지를 주장하였지만 리양박집권이후 더욱 기승을 부렸다고 단죄하였다. 파쇼악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실은 력사는 이미 《보안법》이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하면서 모든 국민이 악법제지투쟁에 떨쳐나서자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람들은 흔히 뱀벤스럽고 령치가 없는자를 첩문이라고 욕한다. 그러나 파편적성과 교활성이 있어서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남조선의 현 집권자에게 꼭 들어맞는 말을 고르거나 결코 쉽지 않다.

얼마전 피괴집권자가 제 7차 무역투자진흥회의라느니 《제 2차한강의 기적》이니, 《하늘의 메세지》니 하고 너스레를 떨던 끝에 남조선에 《청년들이 령정 정도로 중증진출을 해보라.》고 비전통을 돌리었다. 이 수작은 듣는 사람들도 하여금 어연함을 금치 못하게 했다. 도대체 수많은 청년들의 꿈과 포부를 무참히 짓밟은 장본인이 누구인데 이제 와서 체면없이 《중증진출》이니 뭐니 하며 나뉠진단 말인가.

청춘시절은 꿈 인생의 황금시절이다. 허나 누구에나 다 그러하였는 아니다. 남조선에서 청년들에게 있어서 청춘은 꿈 고통이고 죽음이다. 희망의 노래를 마음껏 울며야 할 수많은 청년들이 위기의 소박한 꿈마저 잃은채 《그냥 놀고먹는 쉬는 친구》, 모든것을 자포자기한 《청년배수》가 되어 기회를 방황하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너무 도세사로온 일로 되고있는 곳이 다름아닌 남조선사이다.

프로린정처럼 피괴집권자는 지난 《대통령》선거때 저기가 당선되던 청년들의 일자리문제를

각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안고 북부철길건설공사를 성심성의로 지원하였거

다. **우리가 특명전권대사 모리파니공화국을 위한 련맹 위원장과 수상**을 의례방문

리파니이슬람공화국 수상을 의례방문하였다. 석상에서 수상은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북부하는 조선의 사회제도와 정책에 감탄을 표하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친선적인 조선인민이 경제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함 정도말에 자기의 송고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각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안고 북부철길건설공사를 성심성의로 지원하였거

다. **우리가 특명전권대사 모리파니공화국을 위한 련맹 위원장과 수상**을 의례방문

리파니이슬람공화국 수상을 의례방문하였다. 석상에서 수상은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북부하는 조선의 사회제도와 정책에 감탄을 표하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친선적인 조선인민이 경제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함 정도말에 자기의 송고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청춘의 꿈을 짓밟는 정치간상배

문제는 그드록 같은 고생을 다해 대학졸업장을 손에 댄것자 그것은 곧 《실업증서》에 불과하다. 남조선에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투옥한 일자라가 없어 떠돌다니는 청년들이 무려 27만5천여명에 달하고있다

고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20대 실업자가 되어버리는 20대청년들의 처참한 현실앞에 남조선의 현 언론은 《빛을 받아 비탄 등록금을 매꾸고 졸업해야 일지리를 찾지 못하는 현실이 사회의 슬픈 모습》이라고 개탄하였다. 남조선의 절대다수 청년들이 사회현실에 대한 불만, 불신만이 가득한 《3불시대》, 심각한 생활난으로 인해, 결혼, 해산한 쌍둥이를 《3포세대》로도 모자라 집을 포기하고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5포세대》, 《살모시대》로 전락하고 있다. 보다시피 현 피괴집권세력의 반인민적특징은 류폐적이 심각한 청년실업사태를 빚어내고 있으며 그로 하여 수많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잃고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다.

남조선집권자에게 포괄한 한 령상이었다. 저기가 벗어나면 비극적인 현실에 대한 회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감히 《중증

우리가 특명전권대사 모리파니공화국을 위한 련맹 위원장과 수상

리파니이슬람공화국 수상을 의례방문하였다. 석상에서 수상은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북부하는 조선의 사회제도와 정책에 감탄을 표하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친선적인 조선인민이 경제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함 정도말에 자기의 송고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각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뜨거운 애국의 마음

을 안고 북부철길건설공사를 성심성의로 지원하였거

다. **우리가 특명전권대사 모리파니공화국을 위한 련맹 위원장**

과 수상을 의례방문

하였다. 석상에서 수상은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북부하는 조선의 사회제도와 정책에 감탄을 표하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친선적인 조선인민이 경제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함 정도말에 자기의 송고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각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뜨거운 애국의 마음

을 안고 북부철길건설공사를 성심성의로 지원하였거

다. **우리가 특명전권대사 모리파니공화국을 위한 련맹 위원장**

우리가 특명전권대사 모리파니공화국을 위한 련맹 위원장

과 수상을 의례방문

하였다. 석상에서 수상은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북부하는 조선의 사회제도와 정책에 감탄을 표하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친선적인 조선인민이 경제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함 정도말에 자기의 송고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각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뜨거운 애국의 마음

을 안고 북부철길건설공사를 성심성의로 지원하였거

다. **우리가 특명전권대사 모리파니공화국을 위한 련맹 위원장**

두줄기 꾀도에 바쳐가는 뜨거운 지성

공사장에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이고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접하고있고 하면서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의 열매를 맺고있는 모습을 접하고있고 하면서

고용률도 높고 있는 모습을 접하고있고 하면서

이처럼 두줄기 꾀도에 바쳐가는 뜨거운 지성이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여 다음엔 영웅의 자리에 자기 자 서섯다고 하면서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의 열매를 맺고있는 모습을 접하고있고 하면서

고용률도 높고 있는 모습을 접하고있고 하면서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모리파니공화국을 위한 련맹 위원장

과 수상을 의례방문

하였다. 석상에서 수상은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북부하는 조선의 사회제도와 정책에 감탄을 표하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친선적인 조선인민이 경제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함 정도말에 자기의 송고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가 특명전권대사 모리파니공화국을 위한 련맹 위원장

과 수상을 의례방문

잇지 못할 사람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에도 이들은 매일이 괴롭아 찾아와 그의 건강회복을 위해 마음쓰며 갖가지 보약들과 구미를 동구구는 음식들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입을 내서 일어나야 한다고 령도 불러주었고 머리맡에 앉아서 새로 나온 도사의 내 용도 알라주며 고무를 준 그들이었다.



어제 그분인가, 1년만에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에는 누구보다 기뻐하며 세바퀴차도 가져다주었고 퇴원할 때에는 혈육보다 먼저 영예군인을 미중하였다.

두줄기 꾀도에 바쳐가는 뜨거운 지성

공사장에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이고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접하고있고 하면서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의 열매를 맺고있는 모습을 접하고있고 하면서

고용률도 높고 있는 모습을 접하고있고 하면서

이처럼 두줄기 꾀도에 바쳐가는 뜨거운 지성이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여 다음엔 영웅의 자리에 자기 자 서섯다고 하면서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의 열매를 맺고있는 모습을 접하고있고 하면서

고용률도 높고 있는 모습을 접하고있고 하면서

이처럼 두줄기 꾀도에 바쳐가는 뜨거운 지성이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여 다음엔 영웅의 자리에 자기 자 서섯다고 하면서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의 열매를 맺고있는 모습을 접하고있고 하면서

고용률도 높고 있는 모습을 접하고있고 하면서

독자의 열지

유정남, 강명제 등들과 군인위 원회 위원장 최병남 등지를 비롯한 일꾼들은 자주 저의 집을 찾아와 생활하여 불편이 없도록 친부모의 이점으로 따듯이 보살펴주곤 합니다.

미덕의 화원속에

집도 맨날있는데 지난해에는 특유영예군인인 아들들의 편의를 해 해 새로 지은 좋은 살림의 1층을 모정하여주고 살림에 필요한 모든것을 저지마다 가지고와 안겨주었습니다.

우리가 특명전권대사 모리파니공화국을 위한 련맹 위원장

과 수상을 의례방문

하였다. 석상에서 수상은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북부하는 조선의 사회제도와 정책에 감탄을 표하였고 있다고 말했다.

리 용돈을 받아쓰고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오죽했으면 해외에 나갔던 대학생들이 한걸음이 《군대도 안인데 집에 돌아갈 만 세고있다.》, 《저희같은 곳에서 간신히 도망했다.》고 울분을 터뜨리고있었다.

대학생들의 처지가 이러한 건대 변하면 교육조차 받지 못한 청년들이 해외에서 파견 모든 대우를 받았는 가 하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청년들이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피괴집권자가 낱겨 즉 당국에 《청년들이 텅텅 비도록 중증진출을 해보라.》고 떠벌이는 자이내지 많을수 있었는가. 그가 청년들이 겪는 불행과 고통에 관심이 있는듯은 생색을 내어 그들의 반 《중북》 진출을 가로 막고 집권위기를 모면해보자는 속심인데 가슴속이 뜨겁다.

남조선청년들은 집권자의 말장난에 속지 않고있다. 얼마전 《세우리당》 대표 김부성이 집권자의 《중증진출》말인을 두둔하며 청년문제해결방도를 찾는다고 여기거기 얼마가 대 학생들의 향에 머뭇해 절충을 치르던것도 그것을 부추겼다.

민중을 기만, 우롱하며 반역통치를 일삼는 정치협잡군들에게 차제일되는 민정의 저주와 규탄, 비참한 종말뿐이다.

